군종주보

2024년 5월 26일(제1195호)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청소년 주일)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 씀

“새롭게 쓰는 사랑”

하느님은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외아들인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지요. 외아드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에 대한 성부 하느님의 지극한 사랑 때문에 세상에서 성부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땠습니까? 사랑을 말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한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성공적으로 마치려면, 상대방이 사랑을 받아주는 것으로 끝을 맺어야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으니까요.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은 짝사랑이었고, 실패한 사랑이 되는 것이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인간을 향한 실패한 하느님 사랑의 이야기는 성경 전반에 걸쳐 나옵니다. 거의 매 순간 실패하지요. 하느님께서는 인간에게 매번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인간은 그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느님의 사랑에서 벗어나려 하지요. 구약의 몇몇 사례는 그 실패를 아주 사실적으로 전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계속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이집트에서의 탈출, 이스라엘과의 계약, 판관들을 보내주심, 예언자들을 보내주심,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끝에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지요. 그러나 예수님도 실패하십니다.

인간이었다면 거듭되는 실패에 마음이 꺾였겠지만, 하느님은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사람을 부르십니다. 갈릴래아는 예수님의 첫무대였습니다.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어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마태 28,18-19)고 말이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다시 한번 그 사랑의 역사를 쓰시기 위해 자신이 처음 시작한 자리에서 인간의 힘을 빌려 시작한 것이지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신 분께서 그 사랑의 끈을 놓지 않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의 시대를 사는 우리가 그 사랑을 삶 안에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하느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태도를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실패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딛고 더 큰 사랑을 베푸셨던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웃들에게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박동진(안드레아) 신부
해병중앙(해병대사령부) 성당 주임

제 1 독 서	신명 4,32-34.39-40
화 답 송	◎ 행복하여라,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제 2 독 서	로마 8,14-17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은 영광받으소서. ◎
복 음	마태 28,16-20
영 성 체 송	너희가 하느님의 자녀이기에 하느님이 당신 아드님의 영을 너희 마음에 보내셨다. 그 영이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신다.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화집 — 열네 번째 시화

그뿐 아니라 이러한 제도는 그리스도의 정신에도 위배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말씀과 실행으로 항상 가난한 사람과 소외된 사람들의 편을 드시고, 교만한 자와 권세 있는 자에게는 혹독하게 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본래 부자와 세력가에게는 아부하고, 가난뱅이와 비천한 자들은 외면하고 뿌리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선의 사회 제도는 인도의 브라만 신분 계급처럼 전혀 비합리적인 고질적 제도로 구성되어 있지는 아니합니다. 조선 사람들은 쉽사리 합리적인 순리를 수긍하고 이성과 정의의 바른길을 잘 파악합니다. 만일 한마음 한뜻으로 백성에게 동일한 이론을 가르치고 계몽한다면 백성들은 쉽게 동의할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계몽을 받아 이에 정통한 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외교인 양반들 중에서도 정신이 건전한 사람들은 양반의 특권이 전적으로 나쁘다고 시인합니다. 이러한 양반 제도가 계속되는 한 조선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질적인 신분 차별은 쉽게 시정될 수 있습니다. 만일 어떤 높은 벼슬에 사람을 등용할 때 그 사람의 출생 성분을 따지지 않고, 재능과 인격만 평가하여 등용한다면 양반 제도는 강제적인 노력이 없더라도 저절로 쉽게 무너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에 관한 말씀을 드리자면, 육신으로는 어지간히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만 정신적으로는 날마다 점점 더 약해지고 있습니다. 옛 청춘의 활기를 몽땅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옛날에 신부님과 드 라 브뤼니에르(de la Brunieres) 신부님 슬하에서 지내던 시절의 유쾌한 추억을 하루라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해마다 몇 주간씩만이라도 옛날에 누렸던 대로 신부님 곁에서 지내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정신적으로 훨씬 젊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저와 저의 모든 궁핍을 알고 계시는 좋으신 신부님의 기도에 저를 거듭거듭 맡깁니다. 이제 그만 붓을 놓으면서, 성체의 형상 아래 숨어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발 아래, 그리고 자비로운 옥좌 앞에서, 또한 자애로우신 성모님과 함께 신부님의 기도를 바랍니다.

공경하올 스승님께, 지극히 미약한 종, 최 토마스가 올립니다. 〈다음 주에 계속〉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화집』 발췌, 청주교구 양업교회사연구소

복 음 묵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수호천사

이 시간을,
이 공간을,
함께 해주는 이들.

나를 지켜주는 이들.
나의 천사들입니다.

그들을 통해
내가 오늘을 살아갑니다.

▶ 배영길 신부님의 다른 묵상글도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QR코드를 확인해보세요!

성화이야기

성 삼위일체

존할 메제, 1498년경 제작
안 폴락(1435년~1519년) / 뮌헨 성 삼위일체 성당, 독일

15세기에 독일에서 활약한 폴란드 화가의 작품으로 독일 뮌헨에 위치한 성 삼위일체 성당에 제단화 중앙패널로 제작되었다.

중앙에 준엄한 표정의 하느님이 예수님(이제 막 십자가에서 내려진 듯한 모습으로, 팔과 옆구리와 발등에 굳은 핏자국과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 다리가 보인다.)과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와 함께 그려져 계신데, 천사들이 하느님을 보위하며 금색의 장막을 양쪽에서 들고 있다.

예수님의 발치에도 두 천사가 얇은 베일을 들고 있는데, 이를 통해 예수님의 수난이 더욱 강조된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태 28,18-20)

김은혜(엘리사벳)

진제 조망도

교 구 소 식

군종후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삼위일체 대축일: 성가브리엘 이성용 신부

◆ 교구장 동정

- 사제 하계 수련회

(사제 성화의 날, 전역축하미사)

때·곳: 5월 28일(화)~31일(금),
제주 성 이시돌 피정의 집

◆ '군종의 시간' 안내

때: 주일 오후 3시 ~ 4시
평화방송 라디오(105.3Mhz, 서울)
군종교구 홈페이지와 평화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